

투명성 제고 및 부패방지를 위한 지역적 경험 및 인권 영향

한국 정부는 반부패·청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이를 국정 과제로 설정하고, 관련법 강화, 반부패기구 신설 등 제도 개선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6년 세계 53위였던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현재 39위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부패·청렴 문제에 대한 지향점을 공유하고, 그 역할을 분담하면서 나타나는 소중한 성과입니다.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중앙정부의 역할과는 다르게 지방정부는 시민의 생활 영역에서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화성시장으로 선출된 이후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사업을 계획하더라도 이를 집행하는 행정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행정에 초래된 불신이 부정과 부패에서 비롯되었다고 진단하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청렴도시 구현을 시정과제로서 공표했습니다.

다음으로 ‘공정’, ‘인권’, ‘신뢰’와 같은 가치를 명확한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반부패’와 ‘청렴’을 실현하는 과정이 궁극적으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인권’이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공정’이며, 행정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실천을 이끌어내기 위해 정례화된 간부회의를 열어 저의 확고한 의지를 강조하고 실천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해 청렴 실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그 결과를 인사, 성과급 등 인센티브에 반영하였으며, 공직자의 도덕적인 문제에는 엄격하게 조치함으로써 청렴 실천을 위한 동기와 책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리를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저의 시정철학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시장에게 권한과 정보가 집중되어 시민 스스로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고, 시정에 관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민의 권리를 되돌려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통행정

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시민과 공유하는 정보가 확대될수록 시민의 참여가 증가하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시장 취임 이후 페이스북 생방송으로 진행한 시민과의 소통 218회를 통해 시민들이 1,135개의 안건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과 함께 시정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시민과 시정철학을 공유하고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자 참여와 자치의 가치가 확산되었고, 신뢰문화가 뿌리 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와 믿음은 놀라운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공직사회 청렴도 평가에서 609개 공공기관 중에서 1등급, 전국 3위라는 쾌거를 거두었는데, 2017년 평가에서 4등급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그 변화를 단적으로 실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0년 경기도 청렴대상에서도 우수기관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소통 분야에서는 2019년 대한민국 공공정책대상 지방행정부문 대상, ‘전국 지자체 숙의기반 주민참여 사례’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2019 전국기초단체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에 힘입어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면서 상식과 원칙이 살아 있는 공직문화가 강화되고 있으며, 시민의 권리 보장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시정철학이 시민참여와 소통으로 구현되는 기분 좋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청렴도시의 첫발을 내딛은 것에 불과하지만 이에 머물지 않고 ‘공정’, ‘인권’, ‘신뢰’의 가치가 구현되는 청렴도시로 전진할 것입니다. 화성시의 변화가 ‘인권의 지역화’, ‘인권도시’의 미래를 앞당기는 데 일조하기를 바라며,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